

사람의 실체를 바로 가르쳐 줘야 구세주

여러 각도로 보아서 틀림이 없는 존재라야 구세주이지 어느 각도에서는 진짜 같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기쁨을 선사하는 구세주

구세주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까, 슬픔을 줄까? 기쁨을 주죠. 그래서 항상 웃으라고 그러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이상구박사가 말했는데 그사람이 겨우 안다는 게 엔돌핀이 나오는것만 알았지 웃으면 무엇이 변해가지고 엔돌핀이 나온다는 걸 말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신이 아니면 근본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것을 일찍이 말했죠? 웃으면 웃는 피로 변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웃는 거죠? 웃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한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승리제단 나와서 죄만 안 짓는다면 영생을 얻어요. 지난 날의 모든 죄를 구세주가 다 해결해주죠? 죄를 해결해 주는 게 구세주이지 의인을 찾는 것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이 사람이 논해주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구세주가 사해주고 씻어주는 거지, 그냥 씻어주겠다 하고 해서 씻어줄까? 안 씻어줘. 죄를 씻으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간절히 애원을 해야 씻어주는 거지 간절히 애원하지 않으면 씻어주지 않아.

자기 죄를 뉘우치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지어와 그때야 비로소 용서해 주고 씻어주는 것이지, 그대로 뻔뻔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뻔뻔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구세주가 안 씻어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이빨서 해주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걸 씻어줄까? 여러분들 늘 병글병글 웃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늘 웃으라고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근본을 알아야 사람이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근본을 몰라가지고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천지개벽하러 왔어요. 천지개벽이라는 거는 근본으로 돌아가게끔 뒤집어 엎는다 그 소리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된 그러한 근본 학문을 알아야 되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죠? 선악과가 무엇인 것을 육천년간 안 사람이 없죠?

누가복음 8장에 말세가 되기까지 믿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 이비 종교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대 안 그대? 말세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세상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명령구리 사이비 종교들은 알고 있어요. 말세라는 것은 마귀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말세예요. 말세라는 건 끝 말(末)자 세상 세(世)자니까 마귀세상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죽는 세상, 죽음이 여지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죄인도 죽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신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되고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간자를 마음속에 모셔야 천국

성경에는 다 쓰여 있어요. 묵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묵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영생을 하는 자인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간자를 모셔야 그 마음이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 조희성님

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마귀의 영이 되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야. 마귀가 인간 속에 깨달을까봐 선악과를 먹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체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주인이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되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변한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마귀 형상으로 변한 것이 사람이예요.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학문의 근본을 여러분들에게 논하고 있죠? 이런 근본 말이 격암유류이나 불경이나 이런 데 쓰여있어요? 없어! 몰라서 못써요. 구세주라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고향을 찾아가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고향을 동경하는데 인간의 고향이라는 건 바로 천국이예요. 하늘나라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늘나라 가고 싶고 천당가고 싶지 않아요. 아 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 천당가고 싶어요. 아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기를 왜 싫어하느냐?

원래 인간이 본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았던 경행 있는 피가 인간 속에 흐르고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기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주체영이 되어가지고 웃을 수 없도록 기뻐할 수 없도록 요렇게 요렇게 가시로 찔러가지고 괴로움을 주어요. 그 괴로움을 주는 마귀를 이길려고 계속해서 웃으며는 마귀가 죽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웃으면 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 죽이는 무기야. 박멸소탕 하고 기도하면 직방으로 마귀를 죽이는 거지만 늘 웃고다니면 사자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고 병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웃으면 보약이고 건강이 온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을 아는 사람이죠? 죽지 않는 방법이 웃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말이 진짜야, 가짜야? 병글병글 웃으면, 폭소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사람은 십년 이십년 수명이 늘어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려고 왔기 때문에 매일 웃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학문의 근본을

매일 논하고 있죠? 사람의 주체영이 마귀 영 선악과요. 사람속에 양심이 하나님의 영이예요. 양심이 생명의 영이예요.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존재하는 거지 생명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의 피가 없다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어디 있냐면 나라는 의식이야. 먼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마귀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속에 내가 마귀야. 사자귀신이야.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붉은용 마귀야. 붉은용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하고 밀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마는 해와이간자는 붉은용 마귀가 나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시겠어요?

분신으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해

완성자라는 건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태풍도 마음대로 막고 공산주의도 없애 버리고 여름장마도 못지게 하고 풍년도 들게 하고 전쟁도 못하게 하고. 암만 전쟁을 일으키면 할려고 했지마는 이 사람이 막으면 못해. "전쟁을 일으키면 그날로 죽어. 너 죽을래" 이렇게 하면 전쟁 못 일으켜요. 이 사람이 분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실체는 한국 땅에 있지마는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이북에도 갈 수 있고 김일성이 옆에 가서 말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짝짝 못하고 말을 듣는 거야. 김일성이 앞에 "너 전쟁 일으키면 내가 모가지 베를어서 죽어" 건장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러면 발발 땀떨겠죠?

이 사람이 자유자재로 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영모님이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영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말하니까 이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우리제단에 온가죽이 나오는 식구가 있는데 그제 보름 복이 아니에요. 온 식구가 구원을 얻으면 조상 대대로 다 구원되어요. 이게 엄청난 복이

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엄청난 효도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은 핏속에서 뭘 호소하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들의 영은 빨리 구세주가 있는 승리제단 나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바쁘다 아전다 그러면 하루 빠지면 조상님들의 영이 눈물을 리는 거예요.

조상님들의 영은 핏속에 있는고로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완전히 죄를 해결할 때에 자기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죄와 원죄까지 육천년 동안 계속 지은 죄를 다 해결해야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오라는 거야. 매일 나와야 씻을 수가 있어. 자신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대로 쪽 올라가면서 다 씻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돼.

자범죄 유전죄 원죄까지 다 해결을 해야 왕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얼굴에서 빛이 나가.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가요. 얼굴에서 빛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제단에만 있지 판 데는 없어. 그러니까 세계만민들이 이리로 몰려와야. 엄청난 은금보화를 큰배에 바리바리 싣고 우리 승리제단으로 찾아와요.

얼굴에서 빛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왕의 반열에 선 사람이요. 또 얼굴에서 빛이 가장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구세주 인고로 그때는 구세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못 보게 되어 있어. 빛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고로. 얼마나 강하냐 하면 육천년 전부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의 영들과 죄인들이 팔팔 뛰는 그런 빛이예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000년 10월 6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6장 40년의 광야생활》

(1) 이슬 같은 만나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출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이슬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가나안 복지로 입성하기까지) 광야 생활 40년)이나 하늘의 양식인 이슬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슬 만나를 배불리 먹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자그마치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 내렸던 이슬만나를 먹고도 그 백성들이 다 죽었던 것은 육적인 이슬만나(양식)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세주가 내리는 이슬 만나의 영적인 이슬 만나(이기에 그 이슬 만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1) 이슬 같은 만나

모세는 바알제론(Baal-Zephon)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광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빈들에서 목이 타서 해마다가 크고 선한 이름의 바위산에 왔을

때 간신히 물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물이다! 아! 물이다! 이제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 앞을 다투며 서로 떠밀기도 하면서 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정신없이 그 물을 떠서 입에 대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물이냐! 세상에 이렇게 쓴 물이 어디 있어!" 하고 사람들은 모두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에 마라(Marah: 괴로움), 즉 '쓰다'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아! 물 좀 주시오. 모세여! 목이 타서 마라(Marah): 바알제론에서 미디안 홍해변을 따라 직선거리 50킬로미터 남쪽에 '타입 알-이슴(Tayyib al-Ism)'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크고 선한 이름(泰善)의 바위산(The Valley of the Good Name)이 갈라져 있는데, 그 골짜기가 끝나는 자정에 아직도 샘물이 흐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써서 못 먹는 물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www.nephiproject.com/nephi_project_major_discoveries.htm」



크고 선한 이름의 바위산

우리들은 다 죽어갑니다. 물! 물! 모세여!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목을 적시게 해주시오" 모세는 목이 타는 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하나님께 마실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가지지를 꺾어서 물속에 던지니까 곧 물은 차고 시원한 단물로 변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옛날 애굽 사람들이 걸린 병 따위는 걸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었습니다. 물샘 열둘, 즉 오아시스가 12개나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12부족이어서 한 우물마다 한 부족씩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중은 엘림을 떠나 홍해가? 샬마(Sharmah)라는 어촌(漁村)에 진을 쳤습니다.

2 엘림(Elim): 마라에서 홍해변을 따라 25km 남짓 남하하면 알 마야그나(Ai Maqna)라는 마을을 만납니다. 그곳에는 전래되는 아윤 무사(Ayun Musa-모세의 눈, 모세의 우물)가 있으며, 곧 엘림(출애굽기15:27)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눈'이라 불리는 우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우물 안에서 12개의 물줄기가 샘솟고 있으며 주위에 종려나무가 오랜 세월을 말해줄듯 자라고 있습니다.

3 홍해가: 출애굽기(출16:1)에서는 엘림에서 곧바로 신광야로 진행하지만 민수기(민33:10)에서는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홍해가에 진을 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 출처: Elim oasis in Arabia, https://youtu.be/eHqVZJy-mn4

처)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다시 엘림 쪽으로 향하다가 중도에서 북진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는 알 바드(Ai Bad) 근처를 지나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애굽을 떠나, 먼 길을 걸어온 지가 두 달째 되는 보름에 엘림과 시내산(라오즈산) 사이에 있는 신(Sin)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리만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여섯째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 한 사람에게 두 오멜씩 거두어 들이고, 여섯째 날에 모은 것으로 떡을 만들면 그 다음 날은 거두지 않고 딱게 되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쉬면서 먹으리라.*"

- 다음호에 계속 - 안젤라.com